

■ 全國圖書館大會 主題發表

國立中央圖書館 發展計劃에 대한 檢討

鄭 駢 謨

<中央大教授>

序 言

本人은 國立中央圖書館의 發展計劃을 다시 수립하는 데 參考資料로 삼고자하니 이에 대한 所見을 말해달라는 위촉을 받고 부득이 단상에 오르기는 했으나, 本人이 政策立案者도 아니요, 그 執行者도 아니며, 圖書館政策이나 그 運營管理를 專攻하는 學者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常識的인 면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無責任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本人은 아주 自由스럽게 또한 어떤 責任의 구애를 받지 않고 “國立中央圖書館이 이렇게 發展했으면 좋겠다”하는 所望이나 期待를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現在까지 國立中央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몇가지 資料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現在까지 수립된 計劃에 대한 重複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① “圖書館法”과 ② 지난 봄에 行政改革委員會에서 提示한 “圖書館行政改善을 위한 調查報告書”에 나타난 事項, ③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에서 提示한 「綜合發展指標」 등에 나타난 事項 등, 이 세가지 資料를 근거로 해서 이틀 가운데 未備하다고 생각되는 事項을 指摘해서 檢討하고자 한다.

그러나 國立中央圖書館만이 本人이 所望하는 대로 發展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전체의 圖書館이 發展할 수 있는 國家政策이 수립된 연후에 이러한 政策을 기초로 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 전체의 圖書館發展의 基本政策樹에 대한 所望을 먼저 論及하고자 한다.

1. 圖書館政策의 樹立

圖書館을 발전시키자면 우선 國家의 圖書館政策을 수립해야 하고, 圖書館政策을 수립하자면 法治國家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國家의 基本方針을 法律로써 명확하게 規定해야 한다. 따라서 現行의 圖書館法에 의해서는 圖書館政策이 수립될 수 없으므로, 우선 이 圖書

館法을 改正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年初에 발표된 行政改革委員會의 “圖書館行政改善을 위한 調查報告書”에도 “法體制를 整備할 것”을 建議하고 있다.

그러면 圖書館法을 어떻게 改正해야 할 것인가? 本人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大統領直屬下에 圖書館管理廳” 또는 “文獻情報管理廳”을 設置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全國의 圖書館行政을 管轄하고, 國立中央圖書館을 포함하는 全國의 公共圖書館豫算을 확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圖書館界의 대부분의 意思는 國務總理直屬이나 文教部長官 혹은 文化公報部長官直屬으로 “圖書館發展委員會”를 設置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行政制度는 어떤 委員會는 行政力이 없고, 豫算申請權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론 美國의 경우는 白宮廳內에 圖書館政策諮問委員會가 있고, 英國의 경우도 國務長官直屬으로 大英圖書館運營委員會가 있어서 이러한 國家에서는 이러한 委員會가 实效性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와는 달라서 거의 모든 委員會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運營되고는 그후는 有名無實한 存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圖書館管理廳長” 밑에 “圖書館政策諮問委員會”를 두는 것이 우리나라의 行政體制에 맞을 것이다. 이 諮問委員會도 圖書館管理廳長의 추천에 따라서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國務總理直屬이나 文教部長官 또는 文化公報部長官 直屬으로 圖書館發展委員會를 둔다면 圖書行政實務를 담당할 所管部署가 이들 세 部處에 소속될 것이며, 그 部署는 “圖書館課”나 아니면 잘해야 “圖書館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圖書館豫算確保가 어렵고 각 館種에 따라 行政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部處와의 관계도 애매해진다. 하나의 예를 들면 國立中央圖書館長이 行政上으로

는 中央部處의 課長이나 局長의 指示를 받게 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本人은 大統領直屬下에 “圖書館管理廳”을 設置하도록 立法措置할 것을 提案하는 바이다.

II. 國立中央圖書館問題

1. 組織網

全國의 圖書館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國立中央圖書館을 頂點으로 圖書館協力網을 體系化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行政改革委員會案대로 :

“國立中央圖書館을 全國의 中央館으로 하고 市·道單位로 公共圖書館中에서 1個館을 地域代表圖書館으로 指定하여 그 地域內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 및 마을文庫까지를 망라한 專門分野別(縱的), 地域別 圖書館組織網을 구성하여 中央의 指導援助機能이 階層的 段階的으로 一系不亂하게 실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方針이 그대로 추진되기 바란다.

2. 職制

國立中央圖書館長은 적어도 次官級으로 補하도록 하고, 그 任期는 4年間으로 하되 連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任期가 짧으면 圖書館行政이나 圖書館事業 自體도 理解하지 못한채 자리를 물러나게 되고 圖書館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욕도 가지지 못한다.

國立中央圖書館에는 副館長制度를 두어 副館長은 1名으로 하되 반드시 1級公務員 즉, 司書1級의 專門職으로 보하게해야 한다. 그래야만 圖書館의 專門的인 業務가 항상 일관성있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國立中央圖書館長 밑에는 諮問委員會를 두어(7~9명) 圖書館의 효과적인 運營과 發展을 위한 諮問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機能面

國立中央圖書館의 기능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이 가운데 現行 圖書館法에 明示되지 않고 昨年度의 國立中央圖書館의 「綜合發展指標」에도 明示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러나 반드시 실시해야할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 첫째는 國內出版物에 대한 印刷目錄카드의 作成 및 配布이다. 현재까지는 韓國目錄規則이 不實했기 때문에 이 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웠으나 今年度에 目錄規則이 改訂되어 標準化만 된다면 이제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國外的 學術文獻의 망라적인 수집이다. 國立中央圖書館의 「綜合發展指標」(P.17)에 의하면 “外國의 主要한 基本的 圖書 및 學術文獻을 수집하여 國民에게 文獻情報를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網羅的으로 수집하고 保存하

고 利用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美國의 Farmington plan처럼 주요한 綜合圖書館이나 專門圖書館이 分擔蒐集하도록 계획이 樹立되어야 하지만, 國立中央圖書館이 가장 주축이 되어 더욱 網羅的인 蒐集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상당한 豫算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資料購入費만을 위해서도 年間 數10億원 또는 數百億원의 豫算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後進國이니 發展途上國이니 하는 不名譽를 짓고, 國立中央圖書館이 현재와 같은 學生들의 進學을 위한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던지고, 先進國의 경우처럼 國立中央圖書館이 學者들이나 研究者들이나 專門家들의 文獻의 研究院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先進國의 國立中央圖書館規模에 육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國立中央圖書館을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4. 建物과 施設

國立中央圖書館의 「綜合發展指標」라는 冊子(P.14)를 보면 建物增築에 관계된 事項에서 “本館地上 1層 周邊의 옥상에 1階層을 增築하여 休憩室 展示室의 협소를 해결하고, 云云했는데 이러한 方法으로는 藏書數百, 數十萬卷을 어떻게 所藏할 것인가? 現在의 國立中央圖書館의 建物이나 施設이나 그 位置로서는 아무리 해봐도 國立中央圖書館의 면모를 가늠 수가 없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장은 안되더라도 國立中央圖書館은 現存의 國立中央圖書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적어도 5年 이상의 계획으로 都市中央部의 交通이 便利한 곳에 再建되어야 한다.

그리고 國立圖書館은 中央館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思考方式 때문에 國立中央圖書館을 國會圖書館과 合併해야 한다고 論難도 과거에 있었으나 國立圖書館은 오히려 그 機能이나 主題分野에 따라서 分立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다만 國立圖書館間의 業務나 機能의 重複이 있다면 그것은 行政的으로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國會圖書館이나, 國立科學技術圖書館이나 國立醫學圖書館 등과 같이…… 다만 그 중에 國立中央館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歷代古文獻 蒐集 및 保存

國立中央圖書館의 기능 가운데 國家文獻의 蒐集·保存의 기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國家에서 최근에 出版되는 圖書만을 蒐集·保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歷代의 古文獻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在 國立中央圖書館에도 古文獻이 어느 정도 所藏되어 있지만 奎章閣藏書가 현재 서울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本人이 알고 있기에 奎章閣圖書는 本來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日帝時代 京城帝大에서 朝鮮文化를 研究한다고 貸出했다가 8.15解放을 맞아 그대로 서울大圖書館에 소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 奎章閣藏書 뿐만 아니라 藝書閣의 古書도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야 하며, 기타의 國立大學이나 私立大學 및 個人所藏의 古書도 모두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될 수 있도록 國家政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완전히 整理한 연후에 古代 中國에서 四庫나 우리나라 朝鮮時代의 史庫처럼 稀貴書는 影印複製하여 필요에 따라서 地域別로 分藏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필름으로 複製하여 分藏하여 그 貴重한 文化財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現在는 모든 古書가 分散되어 있고 各圖書館마다 貴重書로 취급되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利用이 不可能하니 이것은 死藏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結 論

이상에서 論及한 要旨를 간단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

다.

1. 圖書館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學術과 文化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大統領直屬下에 “圖書館管理廳”을 設置하고 圖書館管理廳長 밑에 “圖書館行政諮問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2. 國立中央圖書館을 頂點으로 全國圖書館奉仕協力網을 體系化해야 한다.
3. 國立中央圖書館長은 政府委員(次官)級으로 補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게 하며, 副館長制度를 두어 專門司書職으로 補해야 한다.
4. 國立中央圖書館長 밑에 諮問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5.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內出版物에 대한 印刷目錄카드를 作成하여 各級 圖書館에 配布해야 한다.
6. 外國의 學術文獻을 망라적으로 수집 보존하기 위해 分擔蒐集政策을 수립해야 한다.
7. 國立中央圖書館의 建物을 적당한 位置에 再建해야 한다.
8. 歷代의 古文獻도 망라적으로 蒐集·保存해서 利用하게 해야 한다.

● 80年度 會費引上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土견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 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서 누누히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解決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이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79年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舉論되어 80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하였습니다.

協會가 제 機能를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까.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團體會費：	A 級	年	120,000원
	B 級		80,000원
	C 級		50,000원
	D 級		20,000원
	E 級		10,000원
個人會費：		年	4,000원